

유리킨사이

잘라낸 금박이나 금니(아교에 개어 만든 금박 가루)으로 문양을 그려 넣는 유리킨사이는 비교적 새로운 도자기 시타에쓰케(유약을 바르기 전에 도자기 바탕에 그림을 그리는 것) 기법으로, 2001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은 예로부터 도자기 장식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송나라 시대(960~1279)부터 도기를 구워낸 후 금으로 그림을 그리는 우와에쓰케(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 표면에 다시 채색하여 가마에 넣고 저온으로 구워 내는 것)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법은 17세기에 일본에 전해졌으며, 긴란(금실을 씨실로 하여 무늬를 놓은 화려한 비단의 일종) 직물과 비슷하다 하여 '긴란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타(현재의 사가현)와 구타니(현재의 이시카와현)의 도예가들이 이 기법을 받아들여지며 긴란데는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간이 흘러 유리킨사이 기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금은 유약을 유리화시키는 굽는 과정의 높은 온도에서 녹거나 변형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긴란데 등에서는 금장식을 최종 공정인 우와에쓰케 기법으로 처리하여 저온 소성을 통해 금을 고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금이 표면 가까이에 남아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벗겨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1960년대 초반, 이시카와현 출신 도예가 다케다 아리쓰네(1888~1976)가 '유리킨사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탄생시켰습니다. 금박을 투명한 유약으로 감싸 저온에서 구워내는 이 기법은 금박의 손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이 나게 합니다.

유리킨사이는 먼저 고온의 유약으로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트레이싱 페이퍼에 그림을 그린 후, 그릇에 문질러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11cm 정사각형 금박에서 필요한 그림조각을 잘라낼 배치를 신중히 계획한 뒤, 각 조각에 그림의 위치를 나타내는 번호를 매깁니다. 그 후 두께 약 1만 분의 1mm 정도의 매우 얇은 금박을 그림이 전사된 2장의 화지(일본 전통 종이)로 감싼 뒤, 그 위에서 손으로 조심스럽게 필요한 조각을 잘라냅니다. 복잡한 작품일 경우, 수백 개의 극소형 조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저온 유약을 얇게 발라 그릇에 붙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핀셋으로 작은 금박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붙여 나갑니다. 금박은 약간의 습결로도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금박을 붙인 후, 금색 안료나 금가루로 세부적인 부분을 더 그린 다음, 바늘 같은 도구로 금박을 긁어 선을 그립니다. 이를 건조시킨 후, 붙인 금박이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투명한 저온 유약을 발라 마지막으로 구워냅니다.

유리킨사이의 명인들은 은박이나 백금박을 사용하거나 금박을 겹치거나 금박 두께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질감과 투명도를 변화시켜 다채로운 표현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2001년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은 요시다 미노리(1932~) 역시 유리킨사이를 완성도 높게 발전시킨 이시카와현 출신의 도예가입니다.